

2030년 서남부권 광역교통망 뜬다

광주~전남·북 순환 교통망

계획·추진중인 도로·철도 개통

전남도 소요 예산 19조 확보 총력

2030년 광주와 전남·북을 순환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망이 대부분 개통되는 2030년 광주와 전남·북을 실시간 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관련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전남도는 8일 “지금까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조1000여억원을 투입했거나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18조9000여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로망과 관련 27개 구간(사업비 13조3000억원)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고흥-완도, 장흥-득량도-고흥 등 섬과 해안 연결 국도 승격, 광주-완도 2단계, 광주-

고흥, 진도-영암, 광주 3순환 고속도로, 고흥-봉래 등 국도확장, 무안국제공항-순천(나주 급천-화순 춘양) 국지도 확장, 장성-하남 등 광역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추포-비금 10km 국도 2호선 해상 연결과 서남해안 주요 섬들의 소재지가 대부분 연륙화될 예정이다.

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익산부터 여수까지 7개 시군을 경유하는 전라선의 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라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익산에서 여수까지 현재 시속 160km, 1시간 38분에서, 300km, 1시간으로 38분이 단축된다. 또 2025년 개통예정인 고막원-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보성 남해안고속전철, 경전선고속전철을 2023년까지 앞당겨 줄 것을 전남도가 요청하고 있다. 또 2022년 완공되는 목포-보성간 고속전철이 정상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보성-순천간 경전선의 전철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중이다.

남해안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임성역에서는 열차가 상호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호남선과 남해안선을 연결하는 지선계획을 국가계획

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부산-경남에서도 남해안고속전철을 이용해 무안국제공항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수도권과의 연결축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망 또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공항기본계획에 명시된 대로 광주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되면 서남부권 관문 공항으로써의 경쟁력이 한층 향상되고, 흑산공항까지 개항되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연결 고속수송망,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해외 입국이 늘어나면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망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방도 사업에도 매년 1500억원 이상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중이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를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북을 하나로 잇는 서남부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선 경제공동체 기반 지원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의 중장기 국가 및 지역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공단지 활성화 유공자 표창 윤병태(맨 왼쪽) 전라남도 청무부지사가 4일 오후 나주시티호텔에서 개최된 '2020 전라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워크숍' 행사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만족도 높아

교육참여 1936명 중 90% "만족"

전남도와 전남교통연수원이 실시한 운수종사자 비대면 온라인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매일 실시중인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난 8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교육에 참여한 1936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참여 인원의 91%인 1775명이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이 계속될지 희망한다는 의견자도 60%인 1161명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는 코로나19 감염격정 없는 재택 교육과 공휴일 강의 정취 등 시간간격 제약이 없다는 점 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전남도와 전남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조합과 협업을 통해 고품질 맞춤형 온라인 스루 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드라이브 스루 교육은 지역별 화물공영주차장을 활용해 30~40명 내외의 차량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접속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면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며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0년 여름 아픔의 기록' 8월 집중호우 수해 사진전

전남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 홀에서 '2020년 여름 아픔의 기록(부제: 8월 수해 사진전)'이라는 제목으로 수해 아픔이 담긴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수해 사진전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담양, 곡성, 구례 등 8개 시군의 수해 현장 사진 등 40점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와 도민 모두가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남도는 수해 피해 대응 및 현장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발간해 향후 풍수해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지역에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1시간 최대강수량 87mm(담양 봉산), 최대 누적강수량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의 한 주택 지붕 위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1016mm(화순 이양)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11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5090명, 재산피해 2000억원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피해

를 입은 공공 및 사유시설에 복구비 9500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 중에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하세요 개인 1억원·법인 5억원...29일까지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육성기금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전남도에 거주한 친환경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등이다.

지원사업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을 비롯 친환경농자재 생산 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판매장 임차료 등 용

도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개인 1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10억원 이내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이며, 연리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를 희망한 농가·단체는 12월 2일부터 29일까

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추진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인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다”며 “도내 친환경 농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때 지원하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식품소재·반가공 시설장비 구축 23억 지원

전남 2곳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2021년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서 해남 육천농업협동조합과 고흥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가 선정됐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식품소재·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과 반가공품으로는 세척·절단된 마늘 등 식자재를 비롯 양파즙 등 착즙, 곡류·과일류 등 분말, 인삼의 사포닌 추출물 등과 같은 첨가물 등이 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식품 트렌드의 변화로 즉석 및 신선편의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 수요가 증가해 추세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7개소가 신청해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총 10개소 사업비 108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전남에서 2개소가 선정돼 2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업에 선정된 해남 육천농업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마늘을 계약재배종으로, 분쇄와 탈피, 선별, 포장 등 과정을 거쳐 반가공한 후 식품업체 등에 납품해 연간 1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고흥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은 유자를 활용해 유자정(절임)을 반가공 형태로 국내·외 식품기업에 납품중이며, 그동안 일본·중국·독일 등에 210억원의 제품을 수출하고 해외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유자 오일도 생산해 한빛향료, 쓰리에프 등 B2B기업 시장을 공략 중이다.

앞서 전라남도는 이 사업에서 2015년 영광(주)새뜸원(새싹보리 분말), 2020년 장성삼서농협(양파, 감자 식자재) 등 13개 업체가 선정돼 9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은 도내 농산물 수요 확대와 수급 조절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며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급기지로 식품소재 산업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해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